

이것을 전하라

출애굽기 10:1-29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리하여서 내 주변에 자녀들이 와 있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자손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어느 유대인이 자손들에게 물려준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유대인은 병이 깊어져 운명의 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식구들에게 그는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여보, 당신 어디있소? 아들은? 며느리는? 딸은? 사위는?” “여보 식구들이 다 여기 있어요.” 아내가 말을 하니,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식구들이 다 여기 있으면 오늘 가게는 누가 보냐?” 가게는 누가 보냐는 것이 과연 우리 자손들에게 전할 마지막 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출 10:1-2) 두 세력의 충돌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바로의 세력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세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와 하나님, 그리고 그 충돌이야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바로는 누구인가?

본문에 나타난 바로는 무엇보다도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함이 없습니다.(출 10:3) 바로의 신하들은 놀라운 말을 바로에게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출 10:7) 애굽이 이미 망하였는데, 바로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신하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나라의 실상을 모르고 계속 엉뚱한 말을 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출 10:16-17)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죄에 매어 있고 그 죄의 삯으로 죽어야 할 인생의 비참한 모습, 두려워하는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 망함, 죄와 죽음, 이것이 바로왕의 특징입니다.

2.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출 10:27)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통제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잠 21:1) 붓물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보에 담긴 물입니다. 때에 따라서, 주인이 그것을 여는 방향에 따라 물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출 10:3a)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사 40:6,8) 모든 인생은 시들고 지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동풍을 불게 하시어 메뚜기 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서풍을 불게 하시어 메뚜기 떼를 치우시기도 하십니다.(출 10:13,19) 하나님은 온 땅을 어두움으로 덮으시기도 하시며, 어두움 가운데 그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소망을 주시기도 하십니다.(출 10:21-23)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바로가 덤비지만 대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3. 하나님과 바로의 충돌

하나님과 바로의 충돌이 있습니다. 바로는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께 도전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돌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영역에서 바로가 하나님께 맞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는 애굽 땅에서 적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며 방해합니다. 기어코 가겠다고 하자 그 다음에는 가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이제 다음 세대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만 가서 드리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출 10:8-11) 지금도 바로처럼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괜찮지만 아이들이 모여 예배드리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바로는 그런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부모가 바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높은 성적 받아 출세하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최선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와서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에 어떤 진통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창 22:5) 아브라함은 아이를 예배의 자리로 함께 데리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예배의 자리에서 최고의 선물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예배 자리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바로도 다음세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또 방해거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다 같이 예배드리러 가지만 제물이 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방해합니다. (출 10:24-26) 이에 대한 모세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제물이 될 만한 것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놔두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뽕뽕 묶고 그냥 놔두고 예배자리에 갑니다.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있음에도 다 놔두고 갑니다. 선교를 해야 하고 건축을 해야 하는데 다 놔두고 갑니다. 바로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거짓된 예물을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세 시간 차이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행 5:1-4)

세상 끝 날까지 바로와 같은 세력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바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요, 내 식구가 바로입니다. 바로의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바로가 되지 마십시오. 바로처럼 살지 마십시오. 바로가 순간순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 승리는 바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돌을 굴러 놓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내 자신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전해 주어야 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게는 누가 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전해 주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 나눔의 시간 ○

1. 본문 말씀은 누구와 누구의 충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2.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바로는 누구인가요?
3. 오늘날의 바로는 누가 될 수 있나요?
4.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할 이야기는 무엇일까요?